

# 민실위 보고서

2012년 7월 25일(수)

## <MB에 매달리는 MBC 뉴스>

최근 MBC 뉴스를 보면 힘 빠져가는 MB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현 정권이 다 저물고 있는데도 유독 MBC 뉴스만 MB에 공을 들이며 도가 넘는 애정을 보이고 있다. 우리 뉴스의 명예가 추락하든 말든, 뉴스가 망가지든 말든, 뉴스 책임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눈웃음을 치는 이유는 뭘까? 어떻게든 청와대에 잘 보여 김재철 씨의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을 연장해 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은 아닐까?

### 1) MB 사과

지난 24일 뉴스데스크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8번째 뉴스로 다뤘다. 반면에 KBS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영장발부'를 톱으로 한 뒤, 세 번째 꼭지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보도했다. 또 SBS는 대통령의 사과를 톱으로 '모든 게 내 불찰', '문안도 직접 작성' 두 꼭지 방송했다. 종합 일간지들도 1면에 사진을 실는 등 비중 있게 다뤘다. 따라서 MBC만의 독특한 편집 때문에 'MB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을 만 한데, 리포트 자체도 클로징 스탠드업으로 "이대통령이 안 좋은 일은 빨리 털어내고 임기 말까지 유럽 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전념할 생각"이라고 전해 품질을 의심케 했다. 요즘 우리 뉴스가 청와대에 얼마나 취약한지는 과거 다른 대통령들의 대국민사과 보도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김현철 한보 비리 (1997년 2월 25일)	김홍업, 김홍걸 비리 (2002년 6월 21일)	박연차 게이트 (2009년 4월 7일)	친인척 측근 비리 (2012년 7월 24일)
톱 리포트 7개	톱 리포트 3개	톱 리포트 7개	리포트 1개 (8번째)

### 2) 측근 수사

이명박 대통령을 15년 동안 보필해온 측근 중의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그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지난 24일 뉴스데스크에서 앵커멘트로 처리됐다. 법조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이 뉴스를 리포트 처리하자고 발제했지만,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유로 '단신 처리'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KBS, SBS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KBS는 톱으로 "조금 전인 8시 20분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SBS도 뉴스 진행 중에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리포트로 처리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뤘다.

하루 전인 지난 23(월)일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김희중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 소식을 '박지원 또 소환 거부' 리포트 후반부에 녹여서 보도했고, 영장이 청구된 22(일)일 뉴스데스크는 날씨 바로 직전, 가장 마지막에 앵커멘트로 처리했다.

과거 대통령의 경우 측근 비리 수사를 우리 뉴스가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김현철 구속 (1997년 5월 17일)	김홍걸 구속 (2002년 5월 18일)	김홍업 구속 (2002년 6월 21일)	노건평 구속 (2008년 12월 4일)	이상득 구속 (2012년 7월 11일)
톱 리포트 8개	톱 리포트 4개	톱 리포트 3개	톱 리포트 6개	리포트 1개 (3번째)

### 3) DTI (총부채 상환 비율 Debt To Income)

지난 22(일)일 뉴스데스크는 청와대 끝장토론 결과로 나왔다는 'DTI 규제 완화'를 톱으로 두 꼭지 보도했다. KBS는 17번째에서 단신 처리했고, SBS는 16번째에 리포트 한 개로 처리했다. 'DTI 규제 완화'는 소득은 적어도 경제 능력이 있는 고령 자산가들에게 DTI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것이 핵심으로, 시청자의 대부분인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거리가 있는 뉴스였다. 우리 뉴스는 두 번째 꼭지에서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은 지적했지만, 고령자산가에게 예외를 두기 시작한 DTI의 완화가 한국 가계부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은 시청자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심각한 가계부채와 함께 국가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고, 앞서 OECD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가계부채로 인한 한국의 디폴트 위험성이 스페인, 그리스 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DTI규제 완화' 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는 커녕, 이게 '청와대 끝장토론의 빛나는 성과'라고 평가한 게 우리 보도의 현 주소다.

### 4) 4대강

지난 23(월)일엔 뉴스데스크 큐시트에 끝까지 남아있던 '4대강 수질개선 리포트'가 방송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 개선의 근거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개선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보면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것인데 환경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요지의 리포트였다. 취재 기자의 송고본은 '4대강 녹차라떼'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녹조현상이 심한 상황임을 그림 위주로 밀도 있게 반영했다.

이 아이템은 뉴스데스크 진행과정에서 빠지고 다음날 아침 뉴스투데이로 나갔다. 이에 대해 오정환 사회1부장은 "환경부 입장을 인터뷰하지 못해, 환경부의 입장을 CG로 처리하면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해당 아이템은 부장인 내가 직접 발제한 만큼 어떤 의도를 갖고 뺐 게 아니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4대강' 문제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MB의 성역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제 4대강 개발의 부작용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4대강'을 성역으로 보호할 것인가?